

종립학교를 가다

(8)심인중·고등학교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지향하는 실천불교인 대한불교진각종의 교리에 입각하여 지역을 결집한 선남선녀를 양성하고 호국정신과 전통 문화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이타자리의 덕성인을 기른다.”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심인중·고등학교의 건학이념이다. 심인중·고등학교는 불교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손규상 대종사에 의해 1953년과 55년 각각 설립됐다. 이후 불교사상에 의한 인제교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회당 대종사의 무진서원과 진언행자들의 참여속에 성장을 거듭한 심인중·고등학교는 현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 ‘눈길’

다음 밝히는 공부'라는 뜻의 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인중·고등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 자아를 완성하는 인성교육을 제일 중요시 하고 있다. 심학시간 및 명상의 시간 운영, 내가먼저인사하기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심학시간이란 진각종에서 발행한 종교 교과서를 배우고 개인의 심성을 밝히는 시간으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매주 한 시간씩 심학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수업시작 전에 실시되는 명상의 시간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먼저인사하기운동도

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인문계 학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로 학교가 평가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인중·고등학교가 명문사학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률 87%. 전문대를 포함하면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대에는 연 평균 13명이 입학하고 있고, 입시사상 한해에 서울대 법대 8명 동시 입학이라는 진기록도 가지고 있다.

종립학교에서의 신생활동 활성화는 기본.



▷대구 심인중·고등학교는 불교진각종의 교리를 바탕으로 이타자리의 덕성인을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은 심인고 취타대가 울산 문수경기장 오프닝에서 연주하는 모습.

전국 최초 취타대 행사초청 단골

천체관측반 과학자 꿈 키워... 풍물반도 유명

대학들이 특기와 소질, 단체활동 등 다양한 선발기준을 두고 있어 입시교육에 위축된 고교 동아리들이 최근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심인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타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가운데 최초로 결성된 취타대는 음악담당 배해근 선생님의 지도아래 총 37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국악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던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하는 등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됐다. 대구와 울산 월드컵 경기장 오프닝 행사에서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이들의 실력이 '최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례라 하겠다. 특히 심인고 취타대를 중심으로 대구청소년국악 관련학단이 창단되는 등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고 있

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77년 창설된 탁구부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만도 한국중고탁구연맹회장기 우승, 대통령기 준우승, 전국 종합선수권대회 준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동안 배출된 국가대표만도 오상은 김희찬, 남성관 등 다수다.

심인고등학교 옥상에는 최신의 천체 망원경이 있다. 그래서 천체관측반의 활동도 왕성하다. 천체관측반 학생들은 별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과학자의 꿈을 꾸기도 한다. 결성된 지 20년이 넘는 풍물반 또한 학교의 자랑이다. 풍물반은 청소년국악제 등 각종 대회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밖에도 진각불교학생회, 푸른물고기반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교실에서

일학 정사·허웅·강현구·김의현 교사

“바른 심성 갖도록 지도”

진각종은 신라와 고려의 밀교를 계승하기 위하여 입교 개종된 밀교종중 종단이다. 그래서 기존 종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조차도 약간씩 다르다. 스님을 정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또 종립학교에서 불교관련 업무를 맡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교법사라 부르는 것과 달리 이곳 진각종립학교에서는 심학교사라 부른다.

심인중·고등학교에는 심학교사들이 근무하는 정교실이 있다. 정교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학교 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마음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 시북 심인당 주교 일학 정사는 이곳

정교실의 실장이 다. 심인중·고등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바른 심성을 가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최장인 셈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여념이 없다.

일학정사를 돕고 있는 허웅 고등학교 심학교사와 강현구·김의현 중학교 심학교사는 학생들에게 효행, 기조질서 등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 등 인성교육과 진각 불교학생회 지도 등 교내의 불교활동에 열심이다.



▷일학 정사 ▷허웅 ▷강현구 ▷김의현

손규상 진각종 종조 설립

서울법대 8명 동시입학도

인사를 통해 하심(下心)을 배우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있다. 이같은 인성교육의 결과 최근 4년간 자퇴나 퇴학당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생활지도 우수교로 선정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정보사회로 진입하여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심인중·고등학교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 내에 정보 기반 시설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정보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몇 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또 정보검색대회 등 각종 공모전을 개최해 정보소양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소양 인증제 실시, 학생 1가정 IPC 및 E-mail 갖기 운동,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

심학시간 등 인성교육

4년째 퇴학생 없어

심인 역시 그러하다.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진각불교학생회는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한 정기법회 뿐만 아니라 대구 심인당에서 생활순례, 수련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고 양로원, 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교직원들도 심인중·고 정교실장 일학정사를 중심으로 매일 1차례 법회를 보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 교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는 등 최신 시설로 최고의 면학분위기를 갖춘 심인중·고등학교에는 현재 이사장 지광정사와 교직원들의 화합아래 중학교 1,014명, 고등학교 1,265명의 청보리들이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오늘도 늦은밤까지 교실 불을 밝히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건봉사 주지 영도 스님이 참가자들과 함께 명물 정진을 하고 있다.

바닷가 절벽 '홍련암의美' 감탄

본사 7월 지역불교문화기행

건봉사 진신치아사리 친견도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의 날씨 때문에 순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깨고 현대불교가 주최한 지역불교문화기행 참가자들이 찾아가던 동해안은 빗줄기가 잠시 멈춰 있었다.

22일 새벽 4시 정동진 등명낙가사 대웅전. 청우 주지 스님의 집전으로 아침 예불이 봉행됐다. 참가자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대웅전을 나오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멀리 보이는 지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등명낙가사 참배에 이어 참가자들은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양양 낙산사와 홍

련암을 찾아가 108배 정진을 했다.

오후에는 이번 일정의 마지막인 고성 건봉사를 찾았다. 건봉사 주지 영도 스님은 "건봉사는 임진왜란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호국도량이자, 염불만일회가 처음으로 열린 유서깊은 사찰"이라며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이기도 한만큼 짧은 시간이나마 각자 개인적으로 정진의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 50여명의 참가자들은 부처님 진신치아사리가 봉안된 만일염불원으로 자리를 옮겨 사리를 친견했다.

중국에서 온 진연(24세)씨는 "바다가 뻗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위치한 홍련암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감회를 털어놓았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⑩

• 스트레칭 •

1. 두 무릎으로 꿇어앉은 자세를 취하고, 정강이와 팔은 바닥에 놓고 한다. 머리는 팔 위에서 쉬고 단전은 넓적다리 옆에 온다. 단전에 집중한다.
2. '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팔을 늘리고, 목을 뒤로 제끼며

굵은 자세로 가슴펴
골반·척추근육 강화

3. 단전을 수축하며 상체를 시작한 자세로 끌어들이고, 앞가슴을 펴주는 스트레칭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조절해 가며, 단전의 중
4. '뒹' 와 '꼬' 를 반복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도한다. 골반과 척추를 강화시켜주고, 앞가슴의 근육을 펴주는 스트레칭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조절해 가며, 단전의 중

심을 배꼽에서 목으로 목에서 배꼽으로 다시 이동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행한다.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02) 391-6502

최선 다하는 성실교육 강조

심인고 박노선 교장

심인중 정희영교장

66년 평교사로 심인고등학교에 부임한 박노선(사진 위) 교장은 학교 교훈인 '성실'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성실은 자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하늘의 뜻에 가까이 가는 노력"이라고 말하는 박 교장은 "항상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다는 것"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는 또 마음을 고기인 탁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둥근 공이 어디로 쫓겨 모르듯이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쫓겨 모르는 마음을 바로 잡는 심학시간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학교의 자랑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어

보인다.

배움을 떠난 학생은 있을 수 없다는 중학교 정희영(사진 아래) 교장도 심학을 통한 올바른 학생지도도 강조한다. 66년 심인중학교에 부임해 36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심인중학교에 근무한 정 교장은 실천하는 교장으로 통한다. 교내에 떨어져 있는 휴지하나라도 먼저 줍고 있고 남이 하기 싫은 일도 이타자리의 정신으로 실천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매주 일요일 대명 심인당 법회와 월초 불교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신생활동을 하고 있다.



▷심인고 박노선 교장 ▷심인중 정희영교장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겐 없습니다.
불교용품들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황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